

고려시대 兩界의 성곽과 그 특징

申安湜*

- 1. 머리말
- 2. 양계의 성곽구축
- 3. 양계 성곽의 특징
-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전기에는 개경 이북 兩界(北界·東界) 지역의 성곽축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¹⁾ 이러한 성곽 구축의 목적은 양계 지역을 선과 선으로 연결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고려왕조의 邊境, 즉 영토의식을 구현해 나가는 중요

* 건국대학교 강사

1) 고려시대 양계의 성곽 축조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上)』, 『歷史學報』 4, 1953;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下)』, 『歷史學報』 5, 1953; 李基白, 『高麗의 北進政策과 鎮城』, 『東洋學』 7, 1977; 姜性文, 『高麗初期의 北界 開拓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 27, 1983; 김명철, 『고려시기 성의 위치와 년대에 대한 고증』, 『조선고고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李在範, 『麗遼戰爭과 高麗의 防禦體系』, 『韓國軍事史研究』 3, 국방군사연구소, 1999; 申安湜,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 體制』, 『歷史教育』 89, 2004.

한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²⁾ 고려왕조가 변경에 대한 의식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 關防 설치였고, 그 대표적인 것이 1033년(덕종 2)에 축조된 '高麗長城'이었다.³⁾ 이는 고려전기부터 꾸준히 축조된 양계 성곽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양계의 성곽은 북방민족과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의식을 형성하는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성곽은 군사 시설로서 전투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곽의 위치 및 그 재질이나 높이 등 방어력과 관계된 시설이 중요하였다. 또한 성곽의 규모는 거주민의 규모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적 혹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척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양계 성곽의⁴⁾ 시설은 門⁵⁾·水口·城頭·遮城⁶⁾·堞垣⁷⁾·重城⁸⁾ 등으로 이루어졌고, 堡子로 이루어진 戍⁹⁾ 主城에 딸리기도 하였다. 이로써 보면 양계의 성곽은 문·수구·성두

2) 신안식, 『高麗前期의 兩界制와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18, 2005.
 3) 『高麗史』 권5, 덕종 2년 8월 戊午 “祔顯宗于大廟 命平章事柳韶 創置北境關城”
 4) 성곽을 쌓는 재료는 돌 혹은 흙이었는데, 고려시기에는 약 20~25%가 土城으로 쌓여졌다(김명철, 『고려토성의 축조 형식과 방법』, 『조선고고연구』, 1991, 33쪽).
 5) 성문은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과 전투가 발생했을 때 적을 공격하거나 혹은 공격의 목표가 된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성곽에는 성문들이 많은 편에 속한다. 개경의 황성은 20개, 나성은 25개의 성문이 각각 설치되었다(『高麗史』 권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顯宗 20년).
 6) 차성은 主城에 딸린 소규모 성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7) 첩원은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장으로 '城堞·女牆·雉城·雉堞'이라고도 부른다.
 8) 重城을 겹성[二重의 성]으로 해석하면 中城[안쪽의 성, 內城]의 의미와 같아진다. 하지만 重城은 전투가 벌어지는 위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쌓는다는 점, 즉 필요에 의해 축조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조광 등이 '우리가 土山을 쌓아 그들을 꺾박하니, 성 안에 중성[於城內 築重城]을 쌓으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高麗史節要』 권10, 仁宗 14년 2월) 혹은 “여진이 와서 공격하므로 성을 굳게 방비 하였으나 수개월 만에 성이 거의 함락하게 되어 重城을 쌓고 항거하니 여진이 비로소 물러갔다”(『高麗史節要』 권10, 仁宗 22년 2월)라는 기록 등에서, 重城은 전투 혹은 방어를 위해 임시적으로 쌓은 성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內城의 역할을 하는 中城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하였다.
 9) 戍는 本鎮의 전방초소로서 적군의 동태를 탐지하여 그 정보를 본진에 보고하고, 적의 소

· 차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적 혹은 군사적 상황에 따라 첩원과 중성이 구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兩界制는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한 京畿·5道制와 더불어 지방제도로써 편제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계의 촌락 규모와 그 운영 실태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이는 관련 문헌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외에 고고학적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도 비롯되었다. 때문에 성곽의 시설과 규모는 양계 지역의 촌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이며 지방제도로써의 양계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계 지역의 성곽 규모와 시설 등을 살펴보는 가운데, 양계 성곽이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밝혀보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¹⁰⁾

2. 양계의 성곽구축

고려전기의 대외관계는 唐·宋 교체기 중국사회의 변화와 이후 거란·여진 등 북방민족의 도약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대외적인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영토의식과 국방정책을 토대로 주변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 중에서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북방지역에 대한 성곽의 축조였다. 이러한 성곽 축

규모 침입에 대해서는 이를 격퇴하며, 그리고 본진에서 교대로 파견된 병력이 상주하는 곳으로 파악된다(李基白, 『高麗 太祖 時의 鎮』,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61~263쪽).

10) 성곽에 대한 연구는 지리적 위치와 운영체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구조적인 시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양계의 성곽 규모와 시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문헌 자료 이외에 관련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참조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일단 고고학적 성과는 제외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은 차후의 연구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조를 거란과의 3차례에 걸친 전쟁의 추이에 따라 이루어진 방어 전략으로 파악하거나,¹¹⁾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어 위주의 소극적인 국방정책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도¹²⁾ 하였다. 물론 성곽체제의 주목적은 방어 전략이었지만,¹³⁾ 고려전기에는 북방민족과의 변경 설정이¹⁴⁾ 중요한 현안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京畿制와 5道·兩界制로 이루어졌다. 경기는 수도 개경을 보호하는 畿輔 역할을 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남북 지역에 5도와 양계가 각각 편제되었다.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일률적으로 편제하지 않고 양계제로 제도화한 것은 고려의 독특한 지방제도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점을 주로 군사적인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지만,¹⁵⁾ 한편으로는 북방의 변경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왕조의 영토의식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하기도¹⁶⁾ 하였다.

양계제의 편성은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침략 예상경로는 성곽 구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예컨대 거란은 성종대로부터 현종대까지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들의 침략

11) 李在範, 앞의 논문.

12) 서성호, 「고려 태조대 대(對)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 1999.

13) 전근대사회에서의 성곽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설 혹은 군사시설 등으로 기능하였다(『周禮』 夏官司馬 第4 量人條 “掌建國之法 以分國爲九州 營國城郭 營后宮量市朝道巷門渠造都邑亦如之”). 고려시대 또한 개경과 지방은 성곽을 중심으로 도시와 촌락을 이루었으며, 특히 변경지역은 이민족과의 접경이라는 점에서 성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14) 方東仁, 『高麗前期 北進政策의 推移』,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一潮閣, 1997; 김순자, 『고려의 북방경영과 영토 정책』, 『韓中關係史 研究의 成果와 課題』, 韓國史學會, 2003; 申安湜,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教育』 89, 2004; 신안식, 『高麗前期의 兩界制와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18, 2005.

15) 李基白, 『高麗 兩界의 州鎮軍』,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邊太燮, 『高麗兩界의 支配組織』,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金南奎, 『高麗兩界地方史研究』, 새문사, 1989.

16) 신안식, 『高麗前期의 兩界制와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18, 2005.

경로는 保州(義州)－靜州－龍州－鐵州－通州(宣州)－嘉州－博州 또는 保州(義州)－龜州－泰州－博州로 통하는 길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安北府(安州)－肅州－順安－西京－黃州－鳳州－金川－開京 또는 安北府－順川－慈州－江東－遼安－新溪－開京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었다. 이들 경로는 이후 대몽전쟁기의 몽골군과 공민왕대 흥건적의 침략에서도 이용되었다.¹⁷⁾ 그러나 외적의 침략으로 개경이 초토화되기도 하였지만,¹⁸⁾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양계 지역의 성곽을 통한 방어력의 집중에서¹⁹⁾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의 성곽에 대해, “朝廷(송나라)에서 간간이 사신을 보내어 그 나라를 무마하기 위하여 그 지경에 들어가면 성곽들이 우뚝우뚝하여 실로 쉽사리 업신여길 수 없다”라는²⁰⁾ 송나라 사신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兩界 지역의 성곽²¹⁾

驛道 시기	興郊道	興化道	雲中道	朔方道
태조대 (918~943)	龍岡縣 咸從縣 鎮國城 安定鎮 永清鎮 安北府 肅州 平原郡		雲南縣(撫州) 成州 安水鎮(連州) 興德鎮 朝陽鎮(連州) 馬山 連州城 順州 陽岳鎮 大安州(慈州) 殷州	
정종대 (945~949)	德昌鎮(博州) 通德鎮(肅州) 博州		鐵甕(猛州) 德城鎮(渭州)	

17) 國防軍史研究所, 『여·요전쟁』, 『韓民族戰爭通史』Ⅱ 高麗時代篇, 1993.
 18) 『高麗史』 권4, 顯宗 2년 1월 乙亥 “契丹主入京城 焚燒太廟·宮闕·民屋皆盡”
 19) 李基白은 양계의 성곽체계가 무장 도시로 이루어졌고, 전술은 ‘堅壁固守’ 혹은 ‘引兵出擊’과 같은 전술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앞의 논문, 260~261쪽).
 20) 『高麗圖經』 권3, 城邑條 “朝廷間遣使 存撫其國 入其境 城郭巖然 實未易鄙夷之也”
 21) 이 표는 『高麗史』 권82, 志36, 兵2, 城堡條와 『高麗史』 권83, 志37, 兵3, 州縣軍, 北界·東界條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驛道 시기	興郊道	興化道	雲中道	朔方道
광종대 (949~975)		濕忽(嘉州) 寧朔鎮 泰州 信都 嘉州 安戎鎮	威化鎮(雲州) 撫州 安朔鎮(延州) 樂陵郡(渭州) 雲州	長平鎮 和州 高州 博平鎮
경종대 (975~981)			淸塞鎮	
성종대 (981~997)		表興鎮 歸化鎮 郭州 龜州 安義鎮 興化鎮 靈州 宣州(通州)	樹德鎮 猛州	隘守鎮 文州
목종대 (997~1009)		德州 嘉州 光化縣 郭州 龜州 興化鎮 通州	平虜鎮 威化鎮	永豐鎮 鎮溟縣 金壤縣 龍津鎮 翼嶺縣 登州
현종대 (1009~1031)		德州 龍州 鐵州 安義鎮 永平鎮 威遠鎮 定戎鎮 麟州 寧德鎮	淸塞鎮	長州 金壤縣 雲林鎮 宜州 耀德鎮 霜陰縣 顯德鎮 龍津鎮城 高州
덕종대 (1031~1034)		朔州 靜州鎮		
덕종 2년 (고려 장성)		威遠鎮 興化鎮 靜州 寧海鎮 寧德鎮 寧朔鎮 定戎鎮 朔州	雲州 安水鎮 淸塞鎮 平虜鎮 寧遠鎮 孟州	耀德鎮 靜邊鎮 和州
정종대 (1034~1046)			寧遠鎮 平虜鎮	長州 定州 元興鎮 永興鎮
문종대 (1046~1083)		寧朔鎮 龍州	渭州	德州 元興鎮
예종대 (1105~1122)	永清縣	義州		9城
인종대 (1122~1146)		安戎鎮		
의종대 (1146~1170)		嘉州 延州		

〈표 1〉은 북계·동계에 구축된 성곽들을 興郊道·興化道·雲中道·朔方道の驛道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²²⁾ 예컨대 태조대, 즉 고려 성립기에는 청천강을 중심으로 홍교도와 운중도 지역에 성곽들이 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발해 멸망(926년, 태조 9)과 후삼국 통합(936년, 태조 19)을 기점으로 그 차이점을 보여준다. 특히 발해 멸망을 계기로 해서는 거란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홍교도 방면의 용강현과 함중현은 서경으로 통하는 바닷길을 염두에 둔 축성으로 보이며, 그 나머지는 서경과 청천강 사이의 요지에 쌓은 성곽들이었다. 운중도 방면의 성곽들 또한 북방에서 서경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축성은 물론 북방지역의 개척과 이민족에 대한 견제가 어우러진 결과였다. 광종대의 성곽은 홍화도·운중도·삭방도 등 거란과 여진의 경계 지역에서 구축되고 있었다. 이는 압록강 유역으로의 진출과 양계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경구축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려 초기에 홍화도 지역의 성곽이 축조되기 이전까지는 운중도와 청천강 이남의 홍교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평안북도를 에워싸는 형세로 성곽을 축조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광종대의 홍화도 지역이 개척되면서부터 홍화도-운중도-삭방도 지역으로 이어지는 변경구축이 진전되었고, 성종대 이후 거란과의 3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르면서 양계 지역의 성곽들이 좀 더 공고하게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전기의 성곽 구축이 1033년(덕종 2) '고려 장성' 축조의²³⁾ 바탕이 되었다.

양계의 성곽체제는 지방제도의 정비과정을 통한 양계제의 안정과²⁴⁾ 덕종

22) 북계·동계에 구축된 성곽들을 興郊道·興化道·雲中道·朔方道の驛道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은 전적으로 양계 성곽체제의 지리적 위치를 쉽게 설명해 보려는 필자의 편리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동계에서 삭방도 이외에 溟州道를 제외한 것은 북방의 邊境 및 외적과의 잦은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성곽의 위치는 논문 뒷부분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23) 『高麗史』 권5, 德宗 2년 8월 戊午.

24) 邊太燮, 「高麗兩界의 支配組織」,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2년 고려 장성의 축조로 일단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장성의 축조는 대외적으로 국경 확정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고려의 국경이 선의 개념으로 형성될 수 있는²⁵⁾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고려 장성의 구축은 변경 확정을 위한 국경선을 의미하기 이전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의미하고 있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는 곧 1107년(예종 2) 여진을 정벌한 지역에 9성을 구축하여²⁶⁾ 동북면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토대였던 것이다.

따라서 양계의 성곽구축은 대내외적으로 고려왕조의 국방력과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상징성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란-여진-몽골 등 강력한 북방세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자존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3. 양계 성곽의 특징

양계의 성곽체제는 서경을 중심으로 수도 개경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개경 또한 宮城-皇城-羅城의 성곽체제로²⁷⁾ 구축되었다. 고려시대의 성곽은 고구려의 성곽을 계승한²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곽은 유사시에 수도·촌락·주민·경작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었고, 그 위치와 구조는 도시·군사적 기능이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성곽 시설은 전투가 벌어졌을 때 방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주민과

25) 李在範, 앞의 논문, 99~100쪽.

26)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東界條 “睿宗二年 以平章事尹璠 爲元帥 知樞密院事吳延寵 副之 率兵 擊逐女眞 置九城”

27) 『高麗史』 권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顯宗 20년; 신안식, 「고려전기의 축성(築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2000, 17쪽.

28) 전룡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 『역사과학』 2, 1980.

군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 역시 중요하였다.

북계는 동계보다 먼저 정비되었고,²⁹⁾ 홍교도·홍화도·운중도 등의 역도를 끼고 있었다. 홍교도 지역은 서경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며, 홍화도 지역은 압록강을 넘은 외적을 1차로 저지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운중도 지역 또한 홍화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경 지역으로 내려가려는 외적을 저지할 수 있는 전선이였다. 따라서 홍화도와 운중도 지역은 외적의 침략 때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곽 시설과 주진군이 다른 지역보다 잘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2> 興郊道 지역의 성곽 시설과 州鎮軍³⁰⁾

兩界	驛道	城郭	周圍(間)	門	水口	城頭	遮城	堞垣(間)	重城(間)	年代	州鎮軍
北界	興郊道	龍岡縣	1,807	6	1					태조 2	2,801
		咸從縣	236	4	3		2			태조 3	2,654
		安北府	910	12	7	20	5			태조 13	3,625
		肅州(通德鎮)	1,225	10	1	70				태조 22	1,944
		博州	1,001	9	1	16	9			定宗 2	5,459
평균(약)			1,036	8	3	35	5				3,297

29) 신안식, 「高麗前期의 兩界制와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18, 2005, 218~222쪽.

30) <표 2·3·4·5>는 『高麗史』 권82, 志36, 兵2, 城堡條와 『高麗史』 권83, 志37, 兵3, 州縣軍, 北界·東界條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성보조에서는 각 시대별로 축성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주현군조에서는 군인수를 중심으로 각각 정리하였다. 특히 주진군의 인원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기백의 연구에 따랐다(앞의 논문, 246~253쪽). 또한 넓이의 단위로 '間'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度量衡을 고려려의 箕田尺을 기준으로 할 때 1間=1.818m라는(朴興秀, 「도량형제도」,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599~615쪽) 연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면, 홍교도 지역의 성곽은 태조대의 청천강 유역을 중심으로 쌓여진 성곽으로 용강현·함중현·숙주의 성곽을 제외하면 그 규모나 주진군의 배치가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용강현은 성곽의 규모에 비해 주진군이 적은 편이다. 이는 전투를 위한 성곽이라기보다 해안에 위치하여 水路를 통한 보급을 주목적으로 한 성곽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성주·차성·첩원·중성 등과 같은 전투 시설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함중현은 성곽 규모에 비해 주진군의 배치가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서경을 중심으로 한 해안 지역의 전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숙주는 성곽의 규모는 큰 편이었지만 주진군의 배치가 많지 않았고, 성주가 70개로 다른 성곽보다 많았다. 이는 서경과 근접거리에 위치한 지리적인 기능이³¹⁾ 중요했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홍교도 지역의 북단에 위치한 박주는 성곽 규모와 주진군의 배치가 다른 성곽들에 비해 많았다. 이 역시 지리적으로 청천강 이북에 위치하여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점은 성곽의 지역·군사적 성격과 운영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북부는 성곽 규모와 주진군의 배치가 다른 성곽과 비교되는데, 이는 안북부가 지니는 지리·군사적인 중요성으로 판단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안북부에는 軍倉이 있었는데, 평양·삼화·용강·강서·삼등·중화·성천 등의 官租를 거뒀다고³²⁾ 한다. 이는 이 지역이 북방 경영의 경제적 혹은 군사적인 비중이 높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홍교도 지역의 성곽들은 고려 초기에는 북방경계의 최일선을 담당하였지만, 이후 홍화도 지역이 개척되면서부터는 서경을 보호하고 북방경

31) 거란의 2차 침략 때는 서경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숙주를 함락한 사례가 있다(『高麗史』 권4, 顯宗 원년 11월 癸丑 “丹兵 至西京 焚中興寺塔”·甲寅 “陷肅州”).

3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2, 平安道, 安州牧, 城郭條 “有軍倉 收平壤·三和·龍岡·江西·三登·中和·成天等官租稅于此水”

계의 2차전선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면, 홍화도 지역의 성곽은 광종대의 북방개척 및 성종대로부터 현종대에 걸친 거란과의 전쟁 결과에서 획득한 지역으로서 주로 청천강으로부터 압록강 유역 사이에 분포하였다. 때문에 압록강을 넘어온 외적과의 전투가 빈번할 수밖에 없었고, 성곽의 규모와 주진군의 인원수는 북방민족과 대치하는 지역을 고려한 배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성곽의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 체계성을 잘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興化道 지역의 성곽 시설과 州鎭軍

兩界	驛道	城郭	周圍(間)	門	水口	城頭	遮城	堞垣(間)	重城(間)	年代	州鎭軍
北界	興化道	泰州(光化縣)	885	6	1	37	4			광종 20	3,084
		嘉州	1,519							광종 24	4,964
		靈州(興化鎭)	699	7	2	12	2			성종 14	2,089
		宣州(通州)	1,158	6	1	36	3			성종 15	4,733
		郭州	787	8	1	5	2			목종 8	5,504
		龜州	1,507	9	1	41	5	168		목종 9	3,057
		龍州	1,573	10	1	12	4			현종 5	5,591
		鐵州	789	7	1	18	4			현종 7	3,292
		安義鎭	834	5	1	2	3			현종 8	2,711
		威遠鎭	825	7	1	12	12			현종 20	2,712
		定戎鎭	835	7	3	12	5			현종 20	2,883
		麟州	1,349	9	2	23	6	55		현종 21	4,880
		寧德(鎭)	852	7	1	14	7			현종 21	2,967
朔州	865	8	2	17	5			덕종 1	3,674		
靜州鎭	1553	10	1	45	9	260		덕종 2	4,932		
평	군(약)	1,069	8	1	20	5				3,805	

홍화진·선주(통주)·용주·철주·곽주·구주는 993년(성종 12) 거란의 1차 침입³³⁾ 이후 고려가 획득한 '강동 6주'에³⁴⁾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성곽의 규모와 시설들이 잘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진군의 배치도 다른 지역의 성곽들에 비해 많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이 그만큼 군사적인 성격이 중요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예컨대 1010년(현종 1)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는 거란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도모하는³⁵⁾ 한편 30만의 군사를 배치하기도³⁶⁾ 하였다. 이 때 고려 군사의 주둔지가 선주(통주)였다. 통주는 압록강을 건너 거란군이 청천강 이남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또한 거란의 성종은 4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홍화진(영주, 靈州)를 포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려군의 양규와 이수화 등이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지만,³⁷⁾ 강조가 거란과 통주에서 싸워 패전하여 사로잡혔다.³⁸⁾ 이런 여세를 몰아 거란군이 淸水江(청천강)에 이르자 안북도호부사 공부시랑 박섬은 성을 버리고 도망쳐 주민들이 모두 흩어졌고,³⁹⁾ 마침내 서경의 근접 거리인 숙주가 함락되

33) 『高麗史』 권3, 成宗 12년 8월 “是月 女眞復報 契丹兵至 始知事急 分遣諸道兵馬齊正使”
 34) 강동 6주는 고려와 거란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요충지였다. 이들 지역은 해안과도 근접 거리에 위치하여 물자수송에도 유리하였다(『高麗史』 권82, 志36, 兵2, 屯田, 文宗 18년 2월 “命有司以禮成江船一百七艘 一年六次 漕轉龍門倉米于麟·龍·鐵·宣·郭等州及威遠鎭 以充軍糧”).
 35) 『高麗史』 권4, 顯宗 원년 8월 丁未 “遣內史侍郎平章事陳頤 直中臺尙書右丞尹餘 如契丹” · 9월 “遣左司員外郎金延保 如契丹 秋季問候 左司郎中王佐暹 將作丞白日昇 如契丹東京 修好” · 10월 癸丑 “契丹遣給事中高正 閣門引進使韓紀 來告興師 叅知政事李禮均 右僕射王同穎 如契丹 請和”
 36) 『高麗史』 권4, 顯宗 원년 10월 丙午 “以叅知政事康兆 爲行營都統使 檢校尙書右僕射上將軍安紹光 爲行營都兵馬使 少府監崔賢敏 爲左軍兵馬使 刑部侍郎李昉 爲右軍兵馬使 禮賓卿朴忠淑 爲中軍兵馬使 刑部尙書崔士威 爲統軍使 率兵三十萬 軍于通州 以備契丹”
 37) 『高麗史』 권4, 顯宗 원년 11월 辛卯 “契丹主 自將步騎四十萬 渡鴨綠江 圍興化鎭 楊規 李守和等 固守不降”
 38) 『高麗史』 권4, 顯宗 원년 11월 己亥 “康兆 與契丹 戰于通州 敗績就擒”
 39) 『高麗史』 권4, 顯宗 원년 11월 壬子 “丹兵 至淸水江 安北都護府使工部侍郎朴暹 棄城遁 州民皆潰”

었다.⁴⁰⁾ 그 결과 현종이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⁴¹⁾ 급기야 1011년(현종 2) 1월 거란군에 의해 개경이 초토화당하는⁴²⁾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침략 양상은 1216년(고종 3) 契丹遺種의 침입 때에도 그대로 나타났으며,⁴³⁾ 1231년(고종 18) 몽골의 1차 침략 때 구주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물리치는⁴⁴⁾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특히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구주·인주·정주진의 성에는 다른 성곽들과 달리 重城이 딸려 있었다. 이는 그만큼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주진과 인주는 압록강 어귀의 접경 지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광주는 성곽의 규모와 시설에 비해 주진군이 많이 배치되었다. 이는 현종 원년 거란의 2차 침입과 1016(현종 7) 3차 침입에서 치열한 전투를⁴⁵⁾ 치렀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4>에서 보면, 운중도 지역의 성곽 시설은 태조대로부터 정종대까지 정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성곽은 다른 지역의 성곽들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홍화도 지역 다음으로 주진군의 배치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압록강을 넘어온 외적이 서경 지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홍화도 지역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운중도 지역을 거쳐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중도 지역은 홍화도 지역과 더불어 태조대의 이른 시기부터 성곽이 구축된 것으로 이해된다(<표 1>). 성주·조양진(연주)

40) 『高麗史』 권4, 顯宗 원년 11월 甲寅 “陷肅州”
 41) 『高麗史』 권4, 顯宗 원년 11월 壬申 “王與后妃 避丹兵南幸”
 42) 『高麗史』 권4, 顯宗 2년 1월 乙亥 “契丹主入京城 焚燒太廟·宮闕·民屋皆盡”
 43) 『高麗史』 권22, 高宗 3년 8월 辛未 “北界邊報再至 丹兵已屠寧德城 進圍安·義·龜三州 又有兵自麟·龍兩州界 來攻鐵·宣二州”
 44) 『高麗史』 권18, 高宗 18년 9월 丙戌 “蒙兵圍龜州城 不克而退”
 45) 『高麗史』 권4, 顯宗 원년 11월 庚戌 “丹兵陷郭州”; 『高麗史』 권4, 顯宗 7년 1월 庚戌 “契丹耶律世良·蕭屈烈 侵郭州 我軍與戰 死者數萬人 獲輜重而歸”

<표 4> 雲中道 지역의 성곽 시설과 州鎮軍

兩界	驛道	城郭	周圍(間)	門	水口	城頭	遮城	堞垣(間)	重城(間)	年代	州鎮軍
北界	雲中道	成州	691	7	5	7	1	87		태조 8	6,544
		朝陽鎮(連州)	821	4	1	2	2			태조 13	3,931
		順州	610	5	9	15	6			태조 20	5,340
		陽岳鎮	252	3	2	2	2			태조 21	1,571
		殷州	739	8	4	2	4			태조 23	4,224
		撫州(雲南縣)	603	5	2	8	3			광종 2	3,240
		樹德鎮	235	4	1	9	9			성종 2	847
		猛州	655	5	6	19	2			성종 14	3,721
		淸塞鎮	821	7	4	15	4			현종 18	3,273
		寧遠鎮	759	堡子 8區內 金剛戍 42間, 宣威戍 61間, 宣德戍 5間, 長平戍 53間, 鼎岑戍 38間, 鎮河戍 42間, 鐵壩戍 61間, 定安戍 32間, 關城 11,100間						靖宗 7	2,309
平虜鎮	582	堡子 6區內 壽戍戍 36間, 鎮兇戍 30間, 直岑戍 41間, 降魔戍 50間, 折衝戍 30間, 靜戍戍 30間, 關城 14,495間						靖宗 7	2,764		
평 균(약)			615	5	4	9	4				3,433

·순주·양암진·은주·무주(운남현)·수덕진·맹주는 청천강을 넘어온 외적들이 서경 지역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서경 지역을 우회하여 개경으로 직접 내려가기 위해 거쳐야 했으며, 또한 외적을 토벌하기 위한 군사가 홍화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였다.⁴⁶⁾

46)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就礪傳 “賊夜涉淸川江指西京 官軍與賊 戰于渭州城外 敗績”; 『高麗史』 권22, 高宗 3년 9월 壬午 “以大將軍李溥 爲西海道防護使 大將軍崔愈恭 爲東界兼春州道防護使 朝陽鎮奏 契丹兵至鎮 甲仗別監 東大悲院錄事劉性臧 副將李純老等 擊殺二十九人 取旗幟鉦鼓 乃拜性臧 司宰注簿 純老 大悲院錄事”; 戊子 “金來遠軍 移牒寧德城 約

영원진·평로진은 1033년(덕종 2)에 쌓은 '고려 장성'이⁴⁷⁾ 통과하던 지역이었다. 이런 점에서 關城 안쪽에는 主城인 성곽이 축조되었고, 그 바깥에는 전방 초소인 戍가 딸려 있었다고 하겠다. 보자로서 수가 설치된 지역으로는 운중도 지역의 영원진·평로진 이외에 <표 5>에서 삭방도 지역의 장주·정주·원흥진⁴⁸⁾ 및 선덕진⁴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고려 장성'이 통과하거나 북방 민족과의 접경에 위치한 곳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북방 민족의 잦은 침략을⁵⁰⁾ 받기도 하였다.

- 與夾攻契丹 仍索兵馬 菽糧·壬辰“昌州分道將軍金公爽 與丹兵 戰于昌州 斬首四十二級 延州郎將玄章等 屢戰 斬殺七十餘級 獲牛馬八十 雲州副使薛端儒 再戰 殺五十餘級·己亥“西京兵 與契丹 戰于朝陽暨端驛 斬一百六十餘級 溺江死者 亦衆·乙卯“西京兵 至成州之狗淺 遇丹兵二千餘人 交戰 斬獲 共一百十五人”；『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己酉“紅賊 屯撫州 李芳實 以彼衆我寡 斂兵退 請移順·殷·成三州 陽岩·樹德·江東·三登·祥原五縣民 及粟于岳嶺柵 從之”
- 47) '고려 장성'을 '關防' 혹은 '關城'이라고도 불렀다(『高麗史』 권82, 志36, 兵2, 城堡條“(德宗)二年 命平章事柳韶 創置北境關防”；『高麗史』 권5, 德宗 2년 8월 戊午“附顯宗于大廟 命平章事柳韶 創置北境關城”)。 <표 4>에서 寧遠鎮(關城 11,100間)과 平虜鎮(關城 14,495間)의 관성은 이들 지역을 통과하는 고려 장성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 48)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東界條“前此 朔方道以都連浦爲界 築長城 置定州·宣德·元興三關門”
- 49) 『高麗史節要』 권7, 睿宗 2년 12월 乙未“出宣德鎮 安海·拒防兩戍之間”
- 50) 『高麗史』 권6, 靖宗 11년 4월 丙午“西北路兵馬判官監察御史李春奏 蕃賊百餘人 侵寧遠鎮 長平戍 擄掠軍士三十餘人 請治將校不能守禦之罪 從之”；『高麗史』 권8, 文宗 15년 9월 丁卯“都兵馬使奏 賊酋阿羅弗等 犯境 劫掠邊民 平虜鎮兵馬錄事康瑩 西北面兵馬錄事高慶仁 率兵追及降魔鎮 敗之 斬獲數十級 多收兵仗 合示褒賞 從之”；『高麗史』 권8, 文宗 18년 1월 辛酉“西北路兵馬使奏 去壬寅年 蒙浦村賊 謀侵我疆 潛入平虜鎮 設伏折衝 降魔兩戍間 有化內番長齊俊那 知之來告 鎮將 先伏兵草莽 以待之 賊果突入 我兵齊發 俘斬甚多 請厚賞 俊那金帛 從之”；『高麗史』 권9, 文宗 27년 5월 丁未“同發 文選等 馳報 骨面等村都領 各將兵 到三山阿方浦 探候賊穴 凡三所 一爲由戰村 一爲海邊山頭 一爲羅竭村 賊一百五十戶 築石城於川邊 置老小男女財產于城中 以步騎五百餘人 逆戰 我蕃軍 大呼急擊 彼衆大潰 斬二百二十級 餘衆 走保其城 我蕃軍 乘勝追擊 攻城縱火 生擒三百三十二人 在城拒戰者 皆燒死…”；『高麗史』 권9, 文宗 33년 5월 戊辰“北蕃賊 寇平虜關 除正康金 從甫等 潛伏草莽 伺賊至 射前鋒二人 賊犇潰 兵馬使 請加論賞 從之”；『高麗史』 권22, 高宗 7년 3월 丙午“丹兵 入平虜鎮 盜起南原 尋自潰”

<표 5> 朔方道 지역의 성곽 시설과 州鎮軍⁵¹⁾

兩界	驛道	城郭	周圍(間)	門	水口	城頭	遮城	堞垣(間)	重城(間)	年代	州鎮軍
北界	朔方道	長平鎮	535	4						광종 20	672
		和州	1,014	6	3				180	광종 24	1,656
		高州	1,016	6						광종 24	1,158
		文州	578	6						성종 3	1,088
		鎭溟縣	510	5						목종 8	495
		金壤縣	768	6						목종 8	541
		龍津鎮	501	6						목종 9	517
		登州	602	14	2					목종 11	1,396
		宜州	652	5						현종 7	827
		耀德鎭	634	6						현종 14	1,039
		長州	575	戍 6	靜北·高嶺·掃兇·掃蕃·壓川·定遠					靖宗 10	1,449
		定州	809	戍 5	防戍·押胡·弘化·大化·安陸					靖宗 10	1,916
		元興鎭	683	戍 4	來降·壓虜·海門·道安					靖宗 10	1,425
永興鎭	424	4						靖宗 12	619		
평 균(약)		664	6							1,057	

<표 5>에서 보면, 삭방도 지역의 성곽은 앞서 <표 4>에서 운중도 지역의 성곽과는 규모 면에서는 비슷하였지만 성곽 시설과 주진군의 인원수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운중도와 삭방도 지역이 오늘날의 함경도 일대로서 평야보다는 산악 지역이 많이 분포했고,⁵²⁾ 삭방도 지역은 동여진과의 접경 지역이었으므로 홍화도 지역보다 방어적인 면

- 51) 동계 주진군의 현황은 行軍의 인원수가 적혀 있지 않고, 기록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추정치가 근사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표 5>의 주진군은 基幹常備軍을 중심으로 계산하였다(李基白, 앞의 논문, 250~253쪽).
- 52) 『高麗史』 권7, 文宗 8년 8월 庚申“東路兵馬使奏 長州地高且險 城中無井 乞令設柵南門外 平地 徙民居之 有急入城 從之”

에서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장평진·진명현·용진진·금양현·원흥진의 성곽은 해안과 인접한 거리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해적의 침공을 대비하였던⁵³⁾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문종이 임금이 되자 병부낭중 金瓊을 파견하여 동해로부터 남해에 이르기까지 그 연해에 城堡와 農場을 만들어 해적 침공의 요충을 장악케 하였다”는 기록을⁵⁴⁾ 통해서도 이들 지역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문주성은 해적 소탕에 일조하기도 하였다.⁵⁵⁾

화주·고주의 성곽이 광종대에 축조되었는데, 이것들은 삭방도 지역의 다른 성곽보다 규모 면에서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주는 995년(성종 14)에 화주안변도호부로 고쳤다가, 1018년(현종 9)에 낮추어서 화주방어사로 만들어 本營으로 삼았을 정도로⁵⁶⁾ 삭방도 지역의 중심이었다고 하겠다. 또한 요덕진성은 삭방도에서 雲中路로 가는 길목에⁵⁷⁾ 자리 잡고 있었다.

고려 장성이 축조된 이후 정종대에는 정주·선덕진·원흥진에 關門을 설치하였고,⁵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주·정주·원흥진에는 堡子인 戍가 설

53) 『高麗史』 권7, 文宗 4년 1월 己丑 “放朝賀 東北面都兵馬使朴成傑奏 上年十月 海賊 奪鎮 溟兵船二艘而去 兵馬錄事文揚烈 卽率兵船 與元興都部署判官宋齊罕 追至賊穴 焚蕩蘆舍 斬 賊二十級而還 其功可賞 制 付都兵馬使”; 『高麗史』 권8, 文宗 22년 7월 丁酉 “東界兵馬使 奏 判官任希悅 都部署副使裴行之 元興鎮副使石秀珪等 又巡椒島 夜至閻羅浦 遇賊船艘 擊 破三艘 餘賊登岸奔潰 追斬三十餘級 王厚加爵賞”; 『高麗史』 권9, 文宗 27년 6월 丙申 “兵 馬使奏 東蕃海賊 寇東京轄下波潛部曲 奪掠民口 元興鎮都部署軍將 率戰艦數十艘 出椒島與 戰 斬十二級 奪俘十六人 王喜 賜知兵馬事秘書監李成美 領軍都部署將軍康漢等 銀藥合各一 事 其餘有功將吏 職賞有差”; 『高麗史』 권11, 肅宗 원년 6월 甲戌 “鎮溟都部署使 文州防 禦判官李順蹊等 與海賊戰 敗之 斬首十七級”; 『高麗史』 권11, 肅宗 2년 7월 壬申 “東女眞 賊船十艘 寇鎮溟縣 東北面兵馬使金漢忠 遣判官姜拯 與戰克之 獲船三艘 斬首四十八級”

54) 『高麗史』 권82, 志36, 兵2, 城堡條.

55) 『高麗史』 권11, 肅宗 원년 6월 甲戌 “鎮溟都部署 使文州防禦判官李順蹊等 與海賊戰敗之 斬首十七級”

56)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東界, 和州條.

57) 『高麗史』 권100, 列傳13, 杜景升傳 “景升 踰鐵關從耀德 雲中路行 所至風靡”

58)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東界條 “前此 朔方道以都連浦爲界築長城 置定州·宣德·元 興三關門”

치되었다. 이러한 성곽들의 축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었고⁵⁹⁾ 방어력의 효율성을 중요시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은 1108년(예종 3) 윤관의 여진 정벌에서 그 효율성을 잘 보여주었다. 이때의 정벌군 17만이 주둔한 곳이 장춘역으로⁶⁰⁾ 장주 소속이었다. 장주는 <표 5>에서도 볼 수 있듯이 6개의 戍가 설치되었고, 정벌군이 북방 지역으로 나아가는데 이용된 관문이 5개의 戍가 설치된 정주였다. 이러한 삭방도 지역의 성곽들은 윤관의 9성 구축에서도 참고되었을 것이다.

<표 6>은 예종 2년과 3년 사이에 구축된 9성에 대한 것이다. 성곽의 규모는 운중도 및 삭방도 지역의 성곽과 비슷했지만 방어 능력은 뛰어났던 것으로⁶¹⁾ 이해된다. 숙종대로부터 예종대에 걸친 여진 정벌은 중원에서 의송나라가 거란의 압박으로 위축되었고, 거란과는 事大 혹은 ‘고려 장성’을 통한 변경의 안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감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윤관 등이 모든 군부대에 명령하여 성 안의 재목과 기와를 거두어서 9城을

<표 6> 예종대의 九城

구분 \ 성곽	咸州	英州	雄州	福州	吉州	宜州	公險鎮	通泰鎮	平戎鎮
규모(間)		950	992	774	670				
徙民(戶)	13,000	10,000	10,000	7,000	7,000	7,000	5,000	5,000	5,000
기 타	鎮東軍	安嶺軍	寧海軍				鎮	鎮	鎮

59) 『高麗史』 권6, 靖宗 10년 11월 乙亥 “兵馬使金令器奏 今築長·定二州及元興鎮城 不日告 畢勞效甚多”

60) 『高麗史節要』 권7, 睿宗 2년 12월 乙酉 “權·延寵至東界 屯兵于長春驛 軍凡十七萬 號二十萬”

61) 『高麗史節要』 권7, 睿宗 3년 2월 壬辰 “女眞兵數萬 來圍雄州城 崔弘正訓勵士卒 衆皆思鬪 卽開四門齊出 奮擊大敗之”; 『高麗史節要』 권7, 睿宗 3년 5월 “女眞攻雄州城 凡二十七日 兵馬鈐轄林彥·都巡檢使崔弘正等率諸將 分兵固守 與戰日久”

쌓고 남쪽 지방 백성들을 옮겨다가 이를 채웠다”라고⁶²⁾ 하였듯이, 9성 건설은 성 안의 나무와 기와를 뜯어서 구축할 정도로 급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게는 5,000호에서 많게는 13,000호에 이르는 徙民을 통해 성곽을 운영하였다. 이런 점에서 양계 지역의 성곽들은 축조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남방의 성곽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① 東路兵馬使가 아뢰기를, “長州는 지대가 높고 또 험하며 城 안에 우물이 없사오니 바라건대 南門 밖 평지에 木柵을 설치하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하되 위급할 때는 城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⁶³⁾
- ② 본래 고려의 松山縣으로 덕종 2년에 城을 쌓고 民戶 1,000戶를 옮겨 채웠는데, 문종 32년에 또 靜州 등 5城이 성은 큰데 백성이 적으므로 內地의 民戶를 각각 100戶를 옮겨 이를 채웠다.⁶⁴⁾

사료 ①의 장주는 삭방도 지역의 성곽(〈표 5〉)으로 둘레가 575間, 주진군이 1,449명인 소규모였다. 사료 ②의 정주는 흥화도 지역의 성곽(〈표 3〉)으로 둘레가 1,553間, 주진군이 4,932명인 대규모였다. 성곽은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시설도 중요했겠지만 그 성곽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을 것이다. 장주와 같이 산악 지역의 험준한 위치에 건설되면 주민의 생활 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정주는 성의 규모와 주민의 배치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시 성곽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양계의 성곽들이 어떻게 유지 관리되었을까 하는 것은 양계 성곽을 이해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셈이다.

62) 『高麗史』 권82, 志36, 兵2, 城堡, 睿宗 3년 “尹瓘等 令諸軍 撤內城材瓦 以築九城 徙南界民 實之”

63) 『高麗史』 권7, 文宗 8년 8월 庚申.

64)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北界, 安北大都護府 寧州, 靜州條.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양계의 성곽 시설은 門·水口·城頭·遮城·堞垣·重城 등으로 이루어졌고 堡子로 이루어진 戌가 主城에 딸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계의 성곽은 문·수구·성두·차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적 혹은 군사적 상황에 따라 첩원과 중성이 구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곽의 규모에 비해 문과 성두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되는데,⁶⁵⁾ 이는 감시 기능 혹은 촌락의 구조적인 면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한다. 성곽은 군사 시설로써 전투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그 재질이나 높이 등 방어력과 관계된 시설이 중요하였다고 하겠다. 예컨대 ‘고려 장성’은 재질이 石城이었고, 높이와 두께가 각각 25尺(약 8.9m)이었다.⁶⁶⁾ 이 장성은 1119년(예종 14)에 3尺 증축되었기⁶⁷⁾ 때문에 약 28尺(약 10m)의 높이가 되는 셈이다. 이는 개경 羅城의 높이가 27尺(약 9.5m)이고, 두께가 12尺(약 4.2m)이라는⁶⁸⁾ 것과 비교된다. 이런 점에서 성곽의 두께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양계 성곽의 높이는 약 10m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성곽의 규모는 반드시 거주민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지역적 혹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척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5) 고려의 성곽에는 성문이 많은 편에 속한다. 예컨대 개경의 황성에는 20개, 나성에는 25개의 성문이 각각 설치되었다. 고려의 度量衡을 고구려의 箕田尺을 기준으로 계산하면(朴興秀, 앞의 논문, 599~615쪽), 황성 2,600間에 20개 성문은 평균 약 235m마다 1개씩 세워져 있는 셈이다(신안식, 『고려전기의 축성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2000, 17쪽). 이러한 수치를 양계의 성곽에도 적용시켜 보면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때문에 성문의 수효는 촌락의 구조, 출입의 편리성, 군사적인 면 그리고 성곽의 보호 측면 등이 아울러 고려되었을 것이다.

66) 『高麗史』 권82, 志36, 兵2, 城堡 德宗 2년 “以石爲城 高厚 各二十五尺”

67) 『高麗史』 권14, 睿宗 14년 12월 “是歲 增築長城三尺 金邊吏 發兵止之 不從 報曰 修補舊城 葛懶甸李董胡刺古習顯 以聞 金主詔曰 毋得侵軼生事 但愼固營壘 廣布耳目而已”

68) 『高麗史』 권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顯宗 20년 “高二十七尺 厚十二尺”

결국 양계의 성곽체제와 시설은 지방제도로서의 兩界制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며, 양계 村落의 성립과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계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원고투고일 : 2008. 1. 30, 심사완료일 : 2008. 3. 24)

주제어 : 양계, 성곽, 흥화도, 흥교도, 운중도, 삭방도, 고려장성, 압록강, 거란, 여진

<ABSTRACT>

Constr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Yanggae* Castles in the *Goryeo* Dynasty

Shin, An-sik

This research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Yanggae* Castles with emphasis on size and facilities of the Castle in *Yanggae* region.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Goryeo* Dynasty, the construction of castles were actively promoted in *Yanggae*, northern part of *Gaegyeong*. Its symbolic construction have two purposes: integration of *Yanggae* region with walls of the castle and the embodiment of territory awareness, which was the border of the *Goryeo* Dynasty.

The *Yanggae* System in the *Goryeo* Dynasty was composed of *Gyeonggi* System which had a center of *Gaegyeong*, the capital. In addition to five-district system (so-called *Odo* System), *Yanggae* System was organized as a local system.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scope and managing conditions of *Yanggae* village so far. This aspect arises from not only lack of references but also archeological excavation. Knowledge of the size and facilities of the Castles is a prerequisite for understanding the local village community *Yanggae*. This starts from the point of *Yanggae* System as a local system. Moreover, processes and aspects of building up and changes a local community will be investigated to help us understand *Yanggae* System.

By establishing Gateway, the frontier spirit of the *Goryeo* Dynasty was proclaimed externally. In particular, significantly representative was the

Long Wall of *Goryeo* which had consisted of fortresses in northern parts, built from the first half of the *Goryeo* Dynasty. Castles in *Yanggae* region played pivotal roles in building up the frontier spirit as well as in enhancing relationships with a northern race. Castle facilities in *Yanggae* comprised of castle gates, entrances to water, castle heads, and small-scale castles including *Chaseong*, *Cheopone* and *Jungseong*. In addition, *Soo*, which consisted of *Boja*, was attached to the main castle. Their scales were ranged from 236 kan(430m) to 1807 kan(3,290m).

During the early *Goryeo* Dynasty, the fortress in *Heunggyodo* region as the fore front was classified as a big one. However, when the border was extended to the *Yalu* River, the large-scaled fortress could be found in *Heungwhado* region as in *Heunggyodo* region. Fortresses in *Wunjungdo* and *Sakbangdo* regions were not as large as ones in *Heungwhado* and *Heunggyodo* regions. This fact discloses the situation and prospect of outbound political forces such as *Kitan* and *Yeojin*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Goryeo* Dynasty.

In conclusion, the facilities of the fortress system in *Yanggae* region are regarded as part of the *Yanggae* System. Furthermore, the *Yanggae* System provides meaningful materials to reveal how *Yanggae* villages were established and changed.

Key Words : *Yanggae*, Castle, *Heungwhado*, *Heunggyodo*, *Wunjungdo*, *Sakbangdo*,
Long Wall of *Goryeo*, *Yalu* River, *Kitan*, *Yeojin*